

장성군, 신소득 작목 '레몬' 재배 본격화 주목

삼서면 일원 5ha 규모 신규 재배단지 조성 중 농업인 전문가 현장교육·상담 지원도 이어가

장성군이 기후변화 대응 전략 소득 작목인 '레몬'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펼친다. 군은 2025년 준공 예정인 삼서면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건립에 발맞춰 '장성 레몬' 대규모 단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레몬'은 국내에선 제주도에서만 일부 재배 중인 아열대과일로, 전국 소비량의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입 레몬은 방부제와 왁스 처리가 되어 있어, 국내산 레몬에 대한 고정 수요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성군은 앞서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주관 '2023년 맞춤형 미래전략 소득작목 육성 시범 공모'에 선정된 바 있다. 현재 삼서면 일원에 5헥타르(ha) 규모 레몬 재배단지를 조성 중이

다. △강풍 등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耐)재해형 시범하우스 설치 △스마트팜 시설 도입 △친환경 자재 투입 등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전문가 교육과 현장 상담 등 레몬 재배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농가 호응이 높다. 장성군농업기술센터가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강소농 학습모임체를 통해 6월부터 레몬 전문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제주도 레몬 선도농가를 초청해 재배, 시설 관리, 병해충 방제 방법을 전수받기도 했다.

박언정 장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재배 시 기별 전문교육을 제공해 레몬 농가의 애로사항



을 현장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면서 "장성 레몬이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공모사업 2년차인 내년부터

시설 내 에너지절감형 난방시설 구축, 레몬 활용 상품개발 등 전략품목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구축할 방침이다.

장성=김수권 기자

곡성 명품 배 2023년도 미국에 첫 수출 시작

곡성군이 관내 신선 농산물 중 최대 수출 품목인 배의 미국 수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달 수출되는 곡성 배는 조생종 원형 품종으로 77톤, 약 4억 2천만 원 상당의 물량이 미국으로 건너갈 예정이다.

곡성군배영농조합법인(대표 정복기)의 회원 농가 중 25여 농가가 생산하는 수출용 배는, 그 생산량의 100%가 수출로 투입되고 있다. 조합은 안전하고 깨끗한 GAP 인증 시설에서 공동선별을 거쳐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된 유통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농민축산식품부 배 수출전문단지 지정 및 최우수 수출단지 인증을 바탕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 바이어들에게 꾸준히 호평을 받고 있다.

곡성 배는 미국에 집중적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매년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410톤 물량의 수출을 달성하기도 했다. 또한 다양한 나라로 진출하기 위한 조합의 노력 끝에 지난 8일 호주와 태국의 수출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정돼 위 2개국이 수출검역단지 추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호주와 태국에도 곡성 배의 명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곡성=양해영 기자



담양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종로국제서당 캠프' 참여

담양군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원에서 담양군 청소년들과 종로구 청소년, 청년 멘토가 함께하는 "2023 종로국제서당 캠프"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종로국제서당 여름캠프는 지난 2월 담양군과 종로구가 청소년 교류 활동 지원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체결한 '종로국제서당' 업무협약을 계기로 진행됐으며, 이번에 그 결실로 담양군 청소년들이 종로구를 방문했다.

종로구에 도착한 담양군 청소년들은 국제서당 캠프 입학식으로 일정을 시작해 사흘간 미대사관 방문, 훈장님과 함께하는 서당 인문학 교육, 문화유산 영어발표회, 성균관 탐방, 김앤장 법률사무소 방문 등 영어와 인문학 교육 및 역사 체험까지 아우르는 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캠프에 참여한 담양군 최성진 학생은 "외교관이 꿈이었는데 평소 가고 싶었던 미국대사관을 볼 수 있어 정말 기뻐했다"며 "캠프에 참여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나주농업진흥재단-빛가람종합병원, 로컬푸드 공급 확대 업무협약



이음범 재단 부이사장(오른쪽), 오경규 빛가람 종합병원 대표원장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병원 구내식당 로컬푸드 식재료 공급, 재단 임직원 건강검진 시행 기관 지정

신선하고 안전한 나주로컬푸드가 학교와 공공기관에 이어 병원까지 확대·공급된다.

나주시는 11일 나주농업진흥재단과 빛가람종합병원(대표원장 오경규) 간 '로컬푸드 공급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빛가람종합병원 구내식당에 나주로컬푸드 식재료를 공급한다.

재단에서는 임직원 건강검진 시행 기관으로 빛가람종합병원을 지정했다.

이로써 신선한 산지 농산물 공급을 통한 농가 소득 증진, 병원 환자·직원들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병원 경영 활성화라는 '윈-윈'(win-win) 관계를 구축하게 됐다.

오경규 대표원장은 "건강한 먹거리는 환자들의 건강과 직결된다"며 "신선한 나주 농산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돼 감사드리고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음범 재단 부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지역 순환 경제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로컬푸드 농가와 업체,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 4월 개원한 나주빛가람종합병원은 신경·장형·일반외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진료과목 9개와 220개 병상, 인공신장센터, 공공 산후조리원을 갖춘 중형종합병원이다.

나주=송준표 기자

구례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삼대삼미 나눔으로 하나되는 공유 부엌' 수료식 개최

구례군은 8월 9일 구례읍 농업기술센터 교육장에서 지역 주민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삼대삼미 나눔으로 하나 되는 공유 부엌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유부엌 프로그램은 5월 16일부터 8월 9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진행됐다. 전문 강사가 기본 요리부터 고급 요리까지 다양한 레시피를 교육했고, 맞춤형 실습과 이론 교육을 병행했다.

공유 부엌에서 조리된 음식은 홀몸 어르신들에게 반찬으로 전달됐다. 군은 향후 1인 가구와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밀키트를 제작해 상용화할 계획이다.

구례=박진호 기자

화순군, 향토음식학교 떡제조기능사반 성료

떡제조기능사반 총 13회, 교육생 20명 전원 수료



화순군은 떡제조기능사반을 운영한 결과 20명의 교육생 전원이 성공적으로 수료했다고 밝혔다.

떡제조기능사반은 우리쌀 소비 촉진 및 전문자격 취득으로 인한 인력 육성을 목표로 5월 19일부터 8월 11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진행

됐다.

교육내용은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우리나라 떡의 역사 및 문화', '떡류 포장 및 보관 방법' 등의 이론 지식과 식품위생과 개인 안전관리 에 유의하여 찹기, 찌기, 발효, 삶기 등의 공정을 거쳐 각종 떡류를 만들 수 있는 기술 위주로 진행됐다.

교육에 임한 학생 중 16명은 올해 3회차 떡제조기능사 국가 자격시험에 응시해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쾌거를 거두고 앞으로 남은 실기 시험에도 모두 합격할 수 있도록 자율 연습으로 탄방울을 즐기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떡 제조기능사 전문자격 취득으로 자긍심 고취, 쌀과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떡 제품을 개발하고 나아가 창업과 농외소득 증대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음식 관련 다양한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SPS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엔텍

포스코건설
포스코O&M

포스코케미칼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티미날

포스코ICT
포스코A&C

포스코광관